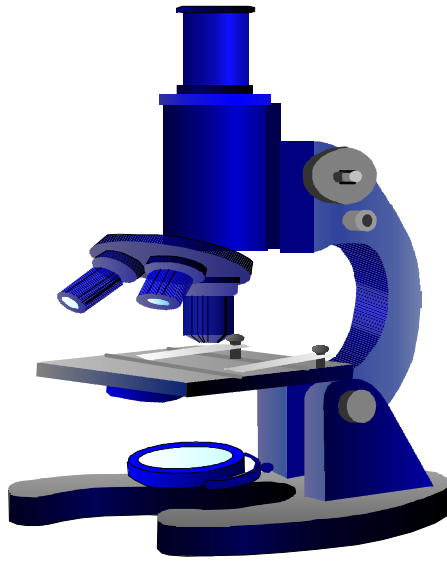


# 샬러리맨 성공학

---



“어떤 교수님의 글을 인용한 자료임”

1. 직업 있는 직장인이 되자
  2. 좋아하는 일을 하자
  3. 강점을 발견하고 계발하자
  4. 시간 ‘가장 비밀스런’ 자원
  5. 3년간 자기혁명 地圖(지도)를 만들자
- 

## 1. ‘직업 있는 직장인’ 으로 거듭나라

직장과 직업은 혼동하지 말아야 ..... 스스로 강점을 키우는 직업 ‘경쟁력의 원천’

흔히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고용불안은 ‘직업이 없는 직장인’ 이라는 데서 연유한다. 처음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어진다.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 보면, 대개의 직장인은 다니고 있는 삼성생명이나 SK텔레콤 등 직장의 이름을 낸다. 이처럼 직장과 직업은 혼용된다. 그러나 자기 직업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의 사야” 혹은 “그 사람은 변호사야”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들은 직장보다는 직업을 먼저 말한다. 모든 전문가는 자신의 직업을 직장과 혼용하지 않는다.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고용불안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자신이 ‘직업이 없는 직장인’ 이라는 데서 연유된다. 지금은 전문성이 중요시 되는 사회, 계발된 기량과 탤런트가 보상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회 아닌가. 이런 사회 속에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지 못한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당연히 직장 속에서 스스로의 ‘직업’ 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예를 들어 단순한 인사부 직원이 아니라 ‘직원복지후생 프로그램 설계사’ 로 불릴 수 있도록 스스로를 집중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혹은 단순한 홍보부 직원이라 생각하지 말고, 회사의 핵심 가치를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카파라이터가 되기 위해 자기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전문가로 자신을 자본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의 원칙이 있다. 이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겠다.

첫째는 자신의 강점에 기대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각기 조금씩 다르다. 그 다르다는 것이 바로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상대적으로 강한 재능에 집중적인 계발의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사람은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이는 명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사항이다. 가시적인 성과는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 배우는 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더 자신을 격려해주는 것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가장 성과가 더딘 쪽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 넣겠지만 잘돼보아야 보통의 사람들의 수준에 머물 뿐이다.

둘째는 충분한 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이다.

시간은 가장 희소한 자원이다. 그러나 가장 쉽게 낭비된다. 시간을 관리할 수는 없다. 시간 관리라는 말처럼 잘못된 용어는 없다. 시간은 우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시간의 통제를 받는다. 누구도 시간의 부족을 채워줄 수 없다. 지나간 시간은 그것으로 끝이다. 시간 관리라는 말의 원뜻은 자기 관리를 의미한다. 자기의 강점을 계발하기 위한 여유 시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자신을 관리함으로써 낭비되던 시간을 모아 강력한 투자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어떤 자기계발도 성공할 수 없다.

자기혁명은 참다운 자신을 찾아가는 내적 모험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그리고 도처에 저항이라는 강력하고 달콤한 복병이 숨어 있다. 모든 변화는 저항과 싸움이다. 저항이 수반되지 않는 변화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대개의 경우 본질적인 변화 대신에 실제로는 아주 피상적인 변화만 일어나고 있음을 반증해 줄 뿐이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기 혁명의 지도를 가지지 못하고서는 ‘자기’라는 미지의 세계 속에서 자신만의 잠재력이라는 보물을 찾아내기 어렵다. 3년 정도의 자기혁명 지도를 만들어 체계적인 변화를 만들어 간다면 그 때 썸이면 ‘직업을 가진 직장인’으로 변해 있게 될 것이다. 체계적 준비 없이는 ‘스스로를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할 일이다.

## 2.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자’

열정 없는 곳에선 大家(대가) 나올 수 없어……. 노력해서 하는 일 ‘괴롭기만 해…….’

대개의 샐러리맨들은 월급 받는 만큼 맡겨진 일만 한다.

강수진은 세계적인 춤꾼이다. 그의 실력은 국내외에서 알아준다. 독일 슈투트 가르트발레단 수석무용수인, 34살의 그는 99년 말 某(모) 춤전문지가 선정한 ‘20세기 한국의 대표적인 춤꾼 6명’에 들 뻔했다가 빠진 적이 있다. 당시 저명한 춤평론가 9명은 “강수진은 아직 역사적 평가를 하기엔 아직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그에게 ‘베스트 6표’를 몰아주지 않았다. 이럴 정도로 강수진은 젊은 나이에 성공한 인생이다. 그는 연습광이다. 한 시즌에 토슈즈 1백50 켤레를 닳아 없애는가 하면, 공연 전 연습할 때는 하루에 19시간을 춤 출 때도 있다. 주위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강씨의 엄청난 연습량에 압도된다. 그리고 가냘픈 여성인 그가 어째서 세계적인 춤꾼인지 이해하게 된다. 그는 누구 뭐라해도 틀림없이 연습벌레이며, 독일 속담처럼 연습이 그를 大家(대가)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성공이 단지 연습의 결과라 생각지 않는다. 그 자신이 꼽고 있는 제 1의 성공요인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 마디에 들어 있다. “나는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다. 좋아하기 때문에 강씨는 하루 종일 춤을 추고 다음날 또 출 수 있다는 것이다.

연습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라면, 그 일은 괴롭다. 노력이 미덕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평생을 노력만 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삶은 얼마나 팍팍하고 고단할 것인가? 묻지 않아도 뻔한 일 아닌가. 강씨의 경우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어려움을 견디고 끈직한 훈련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직장인 중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맡겨진 일이니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월급만큼만 일하고, 삶은 지루하고 일상은 시들하다. 어디에도 열정은 없다. 열정이 없는 곳에서 그 일의 大家(대가)는 나올 수 없다. 보통의 직장인들이 중에 자신의 삶 속으로 뜨거운 열정을 끌고 들어오려면 어찌해야 할 까. 우선 인생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을 설득하는 데 드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이다. 그나마 있는 직장을 버리면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는 경제적 걱정이 앞선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 착각이다. 유감스럽지만, 대부분 직장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의 삶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 ‘무엇인가’의 정체는 뿌옇고 모호하다. 그래서 ‘그 일’을 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우선 첫 번째 과제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나

머지 인생 전체를 바쳐 하고 싶은 단 하나의 프로젝트를 발견해 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는 좋은 방법은 없다. 다만 유효한 몇 가지의 처방이 있긴 하다.

첫째는 우선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하는 것이다. 자신을 만나기 위해 지극한 정성을 쏟으라는 것이다. 시작은 늘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진정한 고뇌에 빠져 보라는 것이다.

둘째는 싫어하는 일을 소거해 내는 일이다. 싫어하는 일은 좋아하는 일보다 분명하고 찾기 쉽다. 조심해야 할 점은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일과 직업이라도, 스스로가 싫어하거나 개인적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싫어하는 리스트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과거에 어찌어찌해서 알게 된 시행착오들을 통해 자신이 좋아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그 다음 현재의 직무와 연관하여 연결이 되는 것에 집중하여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몇 차례의 채질을 통해 걸러진 것을 놓고 마지막으로 신에게 빌어 보자. ‘이 지구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천직이 무엇인지’ 를…….

### 3. ‘내 강점’ 을 찾아내 집중투자 하라

솔직한 ‘才能(재능) 이력서’ 부터 작성, 과거까지 회상하며 ‘잘한 일’ 을 발굴해야 누구든지 자신의 강점을 찾아 그 곳에 지원을 집중 투자할 때 가장 빨리 자신의 전문 분야를 확보할 수 있다. 무슨 일에선 ‘생략할 수 없는 요처’ 가 있게 마련이다. 이 점을 확보하지 못하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 이 점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주된 요인이다. 여기까지 간 사람은 성공에 근접하고, 포기한 사람은 다른 일을 찾아야만 한다. 자기혁명에도 이 같은 점이 숨어 있다. 이 점은 바로 자신의 강점에 대한 인식이다. 자신의 강점을 찾아 그 곳에 유한한 자원을 집중 투자할 수 있을 때, 가장 빨리 자신의 전문 분야를 확보할 수 있다.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더욱 더욱더 살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그 분야의 전문가로 대성할 수 있고, 빠르게 성공의 지름길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자신의 강점을 찾아내는 일은 아주 어려운 과업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생략하면 우리는 자기혁명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 만큼 중요하다.

우선 마음에 드는 좋은 노트 한 권을 사라. 종이와 연필만큼 위대한 지적 수단은 없다. 이 노트의 첫 장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담은 솔직한 ‘재능(才能)의 이력서’를 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재능의 이력서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3가지 내용이 중심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좋다.

1. 당신이라는 강이 흐르기 시작한 시원(始原)을 먼저 생각해 보라.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그분은 어떤 기질과 재능을 가지고 계셨는가? 당신의 피 속에 흐르는 그분의 피는 어떤 것인가? 또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이 두 분이 당신만한 나이일 때,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기록하라

2. 이제 당신의 기질과 재능과 취미에 대하여 정리해 보자

자신을 데리고 오래된 과거, 그러나 당신의 마음 깊이 숨어 있는 아직 살아 있는 과거로 가보자. 먼저 초등학교 다닐 때 가장 잘했던 일, 그리하여 칭찬을 받았던 일 중에 어떤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잘했던 일은 무엇인가? 그리하여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산 일은 무엇인가? 학년별로 찬찬히 생각을 해도 좋고, 일기 같은 당신의 오래된 기록을 참조해도 좋다.

또 이어서 찾아보자. 학교 졸업 후 지금까지 가장 잘한 일 그리하여 부러움을 사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찾아내라. 연도별로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그 무엇인가가 있다. 오랜 된 일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결코 자신에게 작은 일은 아니다.

3. 현재 나의 직업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그리고 정리해 보자. 어떤 직무이던 1백% 좋거나 1백% 싫은 일은 없다. 싫은 부분도 있고 괜찮은 부분도 있게 마련이다. 현재의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활동들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보라. 예를 들어 ‘사원 복리후생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직무는 직원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활동, 다른 복리 후생 요소를 비용과 연결시켜 비교 분석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활동,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작업 활동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은 이렇게 여러 과제(tasks)들이 모여 정해진 방식과 순서를 따라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당신이 현재 맡고 있는 직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활동 과제 2~3가지를 써보라.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가장 싫어하는 활동 과제 2~3가지를 써보라. 그러면 당신의 일이, 자신의 재능과 능력 그리고 취향과 얼마나 어울리는 과제인

지를 알게 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첫번째의 작업에서 자신의 재능에 대해 얼마나 알게 되었는지 노트를 찬찬히 들여다보자. 아직 석연치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모호한 대목은 잘 기억해 두었다가 현업에서 직접 시험해 보는 것이 좋다.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관찰하면 곧 진위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혁명은 늘 자신에 관한 비상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 4. 시간은 가장 비밀스러운 ‘희소자원’

새벽 2시간 떼어내 자기계발에 써라 --- 독학 습관을 가져야

셀러리맨들이 새벽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난 후에 직장을 시작한다는 것은 축복이다. 시간은 가장 비밀스럽고 빠듯한 자원이다. 시간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것도 잘할 수 없다.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시간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직장인 성공’도 이를 수가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시간 관리라는 말은 잘못된 개념이다. 시간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 따라서 시간은 관리할 수 없다. 시간관리의 엄밀한 의미는 ‘엄격한 자기관리’를 뜻한다.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은 그 비밀스러운 힘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계발하려면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자기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것은 결코 헛된 곳으로 날아가질 않고, 남들이 가져갈 수도 없다.

전문가가 되려면 별도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학 없이 좋은 전문가가 될 수 없다. 평범한 직장인의 경우 대개 하루의 1/3은 자고, 1/3은 일하고, 나머지 1/3은 비교적 자유롭다.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 중 반은 씻고, 먹고, 출퇴근하는 데 쓴다. 결국 하루에 정말 자유로운 시간은 겨우 4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결코 길지 않는 시간이다. 이 4시간을 가지고 그동안 직장인들은 소주도 한잔하고, 빈둥거리기도 하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화투도 쳤던 것이다. 이 4시간중 2시간을 빼내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일상을 바꾸는 혁명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혁명 없이는 자신을 바꿀 수 없다. 기술적으로 4시간 남짓한 여가(餘暇)시간 중에서 산만하고 몰입의 정도가 낮고 지루한 수동적인 여가

(餘暇)에 쓰이던 시간을 적극적 여가로 전환시키라는 말부터 하고 싶다.

첫번째가 매일 시간을 떼어내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우선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즉 다른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2시간을 떼어 내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간 3일을 넘기기 어렵다. 먼저 2시간을 떼어낸 후, 나머지 22시간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은 그저 땀 흘려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다. 매일 2시간씩 자신의 인생을 즐기라는 말이다. 노래하고, 술 마시고, 춤을 추는 것 보다 더 좋은 것이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보는 것이다. 그것보다 더 훌륭한 취미가 없다.

두번째는 하루에 2시간을 떼어내어 자신을 계발하는 것에 쓰려면 새벽이 가장 좋다. 새벽에는 다른 일로 인한 유혹이 없다. 술 먹자고 유혹하는 사람도 없다. 하루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축복이다. 하루 전체가 여유가 있어진다. 저녁 늦게 2시간을 쓰는 것이 그 다음 좋은 방법이다. 하루를 끝내기 전에 좋아하는 일에 빠졌다가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일상의 일, 예를 들어 동료와 술자리, 야근, 사업장의 만남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침해받을 수 있다.

셋번째 2시간을 둘 내지 셋으로 쪼개 휴식이 가능한 시간마다 사용하는 것이다. 바쁜 날에는 이 같은 방법은 전혀 잊혀지게 마련, 최우선적 순위에 의해 보호되기가 어렵다. 이게 단점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방법은 일주일에 하루를 할애하는 방법이다. 가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써 볼만하다. 그러나 주 5일 근무 기업체 중 기혼자에게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 늘 일정한 양의 시간을 좋아하는 일에 쏟기 위해서는 편안하게 사는 것을 금해야 한다. 매일 반복해서 아예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적절한 집착이 중요하다. 모든 애정은 어느 정도의 집착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중요한 것은 돈과 성공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는 것이다. 삶과 애정이 만들어 놓은 집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5. 3년간 ‘자기혁명 地圖’ 를 만들어라

6개월 단위로 ‘중간 경유지’ 짜두어야……. 미래 예측보단 미래창조에 치중해야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미래란 새로 만들어 가는 것’ 이라고 믿을 때에만 발전할 수 있다. 변영은, ‘미래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런데 명심 하여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미래를 예측한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 낸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빌 게이츠가 만들어 낸 것은 상품이 아니라 곧 미래였다.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미래를 창조하기가 더 쉽고 더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마라. 먼저 미래의 기회를 선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전략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로 가는 페이브먼트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미래는 새로운 길을 닦아 나가는 것이다. 바로 패스 브레이킹(Path Breaking)이 미래로 가는 과정이다.

미래는 그러므로 ‘지도에 없는 어떤 곳’ 이다. 그런데 지도에 없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지도다.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3년간 정도의 자기혁명 지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그 지도에 출발점을 그리자. 바로 ‘지금 이 곳’ 이다. 그리고 3년 뒤에 내가 가 있게 될 ‘아름다운 그 곳’ 을 그리자. 그리고 그 곳을 도착점이라고 부르자. 그런 다음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사이에 몇 개의 경유지를 설정하고, 그 곳에 도착하는 일정을 명기해 두자. 중간 경유지는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짜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2002년 3월 까지 회사 내에서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 좋다. 한 발 더 나아가서 ‘2003년 3월까지 업계에서 복리후생에 관한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명의 전문가 중 하나로 진입한다’ 같은 좀더 구체적인 것을 집어넣으면 더욱 좋은 이정표가 된다. 이정표는 여행의 길목에 꽂혀 있는 가장 확실한 위치를 말해 준다. 이정표를 보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잘 도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각 경유지에 성공적으로 도착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6개월 내지 1년을 한시적 기간으로 정하고 그동안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우선적 업적’ 을 사전에 기획하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예로 든 ‘2002년 3월까지 복리후생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된다’ 는 목표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 (1)이 분야에 관련된 좋은 책 10권을 정독하고, 자신의 언어로 정리한다.
- (2)이 분야의 영향력 있는 전문가 10명을 선택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로 부터 배운다. 쌍방향 의사교환을 통해 책이 가지고 있는 ‘독학의 허점’ 을

보완한다. 이 두 가지 판단기준을 일단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1년이 지난 다음 이 두 가지 일을 끝마쳤다면 1년 동안의 계획은 잘 마무리된 것이라고 믿어도 좋다. 우리는 이것을 ‘1년간의 승리’ 라고 부른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믿어도 좋다. 우리는 이것을 ‘1년간의 승리’ 라고 부른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마음이 강한 사람도 오래 지속되는 두려움 앞에는 굴복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조그마한 것이라도 작게 성취하면, 흔들리는 마음을 잡는데 아주 좋다. 6개월 혹은 좀 길어서 1년 이내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것이 옳은 일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승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만들어 주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과거의 유산에 매몰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속해 있음을 잊지 말자. 그리고 성공된 미래를 향해 지금 즉시 여행을 떠나자.

글: 구본형, 변화경영전문가

자료출처: 건명 아크릴